

2024 “귀신나무와 석주 이상룡” 배우 모집 신청서

신 청 인	성 명	홍길동	생 년 월 일	900101
	연 락 처	010-1234-5678	E - m a i l	
	주 소	경북 예천군		
예 술 인 활 동 증 명 여 부	부	예술 활동 증명서 (없어도 상관 없습니다.)		
활 동 경 력	· 2023 뮤지컬 ○○○ 연출 · 2023 뮤지컬 ○○○ 연출 · 2023 뮤지컬 ○○○ 연출 · 2023 뮤지컬 ○○○ 연출 · 2023 뮤지컬 ○○○ 연출 · 2023 뮤지컬 ○○○ 연출			

아랫글은 실제 “귀신나무와 석주 이상룡”의 시나리오 중 일부분입니다. 자유롭게 연기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시어 신청서와 함께 보내주세요.
역할은 최보살 혹은 귀신 中 1인 선택 혹은 연결하여 1인 2역도 가능합니다.

“귀신나무와 석주 이상룡” 劇中 제 1막 “귀신나무와 최무당”

최보살: (손에 쥐고있던 종을 흔들면서) 보자보자. 다들 조용히 하거라! 신령님 오신다!

곳을 하고있는 최보살, 갑자기 누군가와 대화하듯 허공을 바라보며

최보살: 너는 누군데 이곳에 감히 온 것이냐? 행색을 보아하니 천한 거지꼴이구나! 하이고, 배는 왜 이리도 고프지! 밥을 못 먹은지 얼마나 된 것이냐?

목소리만 나온다(성우)

귀신: 어찌 이리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것들! 감히 너희들이 누구 덕분에 이렇게 살아가는 줄이나 아느냐!

 은혜도 모르고 허구한 날 이렇게 나무를 베려고들 하니 내 어찌 편안히 갈 수 있겠소! 이 나무는 바로 이곳, 임청각의 주인 석주 이상룡 대감의 혼이 깃든 나무다!

최보살: 이상룡 대감이라니! 바로 이 임청각의 그 이상룡 대감이 맞는가?

귀신: 그분의 영혼이 아직 이곳에 머무르며 너희들을 지켜주고 계신데, 은혜도 모르고 쫓쫓쫓

최보살: 은혜라니? 좀 더 자세히 말해보게!

귀신: 너희들이 이 나무를 베는순간! 이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수백만 독립운동가들을 모욕하는 셈이 될 것이다!